

〔 주제 3 〕 빈곤 문제 연구

각국의 현재 빈곤 현상 소개

보고인 변호사 우츠노미야겐지 (宇都宮健兒)

1. 빈곤 문제와 큰 빈부 격차

일본은 GDP (국내 총 생산 금액) 가 전세계 제 3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, 빈곤 문제와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다.

일본 후생 노동성은 2017년 6월 27일에 발표한 것으로 2015년 일본에 상대적 빈곤율이 15.6%, 이것은 매 국민 6명 당 1인이 빈곤 상태라고 했다. 아동 빈곤율도 13.9%, 매 7명의 어린이 중 1인은 빈곤 상태이며, 한 부모 가정 빈곤율도 50.8%, 각 2가구 당 1가구가 빈곤 상태이라는 것이다.

상대적 빈곤율의 정의는 「소득이 전국 인구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 비례를 뜻한다」. 2015년의 중위 소득 중위수는 244만엔, 그러므로 빈곤선은 122만엔.

이번에 공표한 상대 빈곤율과 지난번 2012년에 조사한 상대 빈곤율을 비교하면,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지만, 그러나 선진국가들 중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빈곤율이 높은 나라이다.

일본 빈곤 문제와 큰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후의 원인은 비약한 사회보장 제도를 포함한 비정규 직업 인구, 노동 빈곤 계급 (가난하고 바쁜 사람들) 의 증가로 인해서이다.

비정규직 인구는 현재 일본에서 2000만 명을 넘어섰고, 전국 노동자 인구의 약 40%를 점유하고 있다. 비정규직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, 연봉 200만 엔을 넘지 않는 저소득 노동자가 이미 연속 9년 동안 1000만 명에 달한다. 2017년 6월 일본의 실업 인구는 192만 명에 도달하였으며, 그 중의 20% 만이 실업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독일, 프랑스 등의 국가는 거의 모든 실업자에게 균등한 실업 보험금을 지급하여 받을 수 있어서, 실업자라고 하여도 바로 소득이 끊기지 않는 반면, 그러나 일본은, 실업은 수입이 없는 노동자가 절대적인 과반수를 차지한다. 현재 일본 전국 평균 시급은 823엔, 선진국 나라들 중 상당

